

러시아 도시 기혼취업여성의 이중역할부담 연구

이 은 주*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문제의 제기

여성의 경제활동은 일반적으로 여성지위 향상 및 남녀평등을 위한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혼 취업 여성은 직장근무이외에도 가사 및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이중역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가사와 육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여성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아직도 여성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단순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해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야기하는 이면의 문제, 즉 여성의 이중역할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이중역할 문제를 잘 보여주는 예로서 대표적 사회주의 국가였던 러시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의 사회주의 혁명 이래로 국가에서 남녀평등의 기본 조건으로 여성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사회주의 이념에서 남녀 평등을 지향하여 제시했던 요건은, 첫째,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사유재산제도의 폐지, 둘째, 여성의 공적 임금노동에의 참여, 셋째, 가사와 육아 기능을 사회의 공적 서비스(공공 식당, 공공 세탁소, 공공 탁아소 등)로 이양시키는 것이었다.¹⁾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본 반면(92%라는 세계 최고의 여성취업율), 이를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 부문은 탁아소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별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²⁾ 즉 여성의 역할규정은 크게 변화한 반면, 사회의 지원은 이를 따르지 못하는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가사노동 및 가부장적 이념과 같은 심리적 기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가족내의 성별분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희박하였다. 이렇게 여성역할의 확대만을 도모하고 남녀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무관심은 여성의 이중역할 부담을 필연적으로 야기하게 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여성들이 이중역할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남녀평등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의 삶에 근본적인 모순이 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여타자본 주의 사회에서와는 달리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됨으로 인하여 이중역할 문제가 주요 사회 문제로 쟁점화되었기 때문이다.³⁾

* 이화여대 강사

1) Frederick Engels (1884), The Origins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2, p.221.

2) А.Г.харчев, Брак и семья в СССР, Москва: Мысль, 1979, p.23.

3) 여성의 이중역할이 가지는 문제점, 즉 이들이 피곤과 스트레스에 끊임없이 처하고 휴식 시간이 잠식되는 데에서 오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논의되어 왔다.

러시아 여성이 이중역할 부담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의 공적 생활이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등 남녀 평등을 향한 대안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러시아 여성의 이중역할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현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하여 이룩하려 했던 남녀 평등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지 못했는지를 여성의 이중역할 현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러시아에 거주하면서 러시아 여성의 일상생활의 개인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한 일차적 자료를 통하여 러시아 여성의 이중역할 양상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혼여성의 취업을 내지 취업희망율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성역할 분리의 정형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강력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취업에 따르는 이중역할 문제가 여타 사회에 비하여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중역할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들이 앞으로는 사회적 차원으로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이미 앞서 경험한 러시아의 경우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 도시 기혼 취업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이중역할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그들의 삶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기술적(descriptive)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를 가족내의 남녀관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성의 이중역할 문제의 핵심은 가정에서의 여성의 전통적 역할이 취업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과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⁴⁾ 본 연구를 통하여, 넓게는 산업사회 전반에 걸쳐 취업여성들이 갖는 이중역할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좁게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다섯 연구질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가족 생활에 관계된 면으로, 가사 육아에 대한 남녀간 불균등한 부담이 가족의 균형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불만족과 분노를 야기시키며,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소지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М.Ю.Артюнян, "Распределение обязанностей в семье и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упругами", Семья и 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Москва АН СССР: Институт социолог, 1987, p.34.

둘째,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직업상의 기술향상이나 재교육, 승진을 위한 경쟁이나 기회에서 멀어짐으로 인하여 여성은 이등 직장인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Е.Ф. Сафро и Г.В. Сувьотина, "О проблеме соотнош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и

семейных функций женщин-инженеров", 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р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отношения, Москва: Мысль, 1980, p.53.

셋째, 여성의 이중역할로 인한 러시아 특유의 문제는 출산율 저하인데, 이는 러시아 정부가 여성의 이중부담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

В.В.Елизаров, Перспективы исследований семьи, Москва: Мысль, 1987, p.105.

- 4) 직업세계에서의 남녀불평등도 이중역할에서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부분은 연구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첫째, 러시아 도시 기혼취업여성의 가사 및 육아 수행의 공적 서비스 이용 현황은 어떠하며, 부부간 분담 어느 정도인가?

둘째, 러시아 도시 기혼취업여성은 가사 및 육아 분담에 대한 기대의 부부간 차이를 어떻게 지각 하며, 이들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어떠한가?

셋째, 러시아 도시 기혼취업여성의 취업 동기는 무엇이며, 직장생활 만족도는 어떠한가?

넷째, 러시아 도시 기혼취업여성이 이중 역할의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어떠하며, 원하는 삶의 형태(전업주부 혹은 취업)는 어떤 것인가?

다섯째, 위의 연구영역들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모스크바에 사는 기혼여성으로서 전일제로 취업하고 있으며, 학령전 자녀(0세-6세)를 하나 이상 두고 있고,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다. 표본의 추출은 소련 과학 아카데미 산하의 사회학 연구소에 비치된 모스크바의 기업 전체 명단에서 직장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각 직장을 방문하여 조사대상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유의적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시기는 예비조사는 1991년 12월-1992년 1월에, 본조사는 1992년 2월-3월 중에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30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도구는 본 연구목적에 맞게 제작된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III. 조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우선 연령을 볼 때 이들의 평균연령은 31.6세, 남편의 평균연령은 34.2세이다. 자녀 수는 1명인 대상자가 66%, 2명이 31%이며, 핵가족이 67%로서, 전반적인 소자녀 갖기 및 핵가족화 추세를 반영한다. 학력은 조사대상자는 전부 고등교육 수료자이며, 남편은 고등교육 수료자가 75%, 중등교육수료자가 24%이다. 직업 분포는 기술분야가 38%, 법률, 회계, 통역등이 17%, 학술분야가 8%, 그 외 교육분야, 행정분야 등이다. 또한 70%가 전공과 일치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소득은 남편 소득의 74%로서 직업세계에서의 여성의 불리한 지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사 및 육아의 공적 서비스 이용 및 부부간 분담 현황

탁아에 대한 공적 서비스 이용은 확립되어 있으나(82.3%가 탁아 서비스 이용), 가사 서비스 이용은 경미하다(식사준비, 집안청소, 세탁 및 다림질, 옷 수선에 있어서 각각 0.3%, 0%, 2.3%, 7.7%가 공적 서비스를 이용).

또한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사와 육아의 많은 부분을 아내가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5) 모스크바 사회학 연구소에서 1992년에 개정한 직업분류양식에 의한 분류임.

남편이 일부 돕기는 하나 균등분담과는 거리가 멀다. 이를 볼 때 가사와 육아에 대하여 성역할의 전통적 구분이 아직도 강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설것이와 집안 청소, 아이랑 놀아주기 등에 대한 남편 참여율이 타 항목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은 가사의 전통적 역할 구분이 변화하고 있다는 표식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가사의 가족내 분담 (N=300) %

	가족내에서 행하지 않음	조사 대상자	남편	부부간 균등분담	부모	기타	무응답	계
설것이	0	62.7	20.7	5.3	7.0	4.0	0.3	100
요리	0	82.7	2.7	3.3	10.3	1.0	0	100
식품 장보기	0.3	50.7	21.7	12.7	9.0	5.0	0.7	100
집안청소	0	68.0	13.0	6.0	7.7	4.7	0.7	100
빨래	0.3	82.7	7.0	3.0	4.0	2.3	0.7	100
옷 다림질	0	79.0	8.7	1.0	6.7	4.0	0.7	100
물건 사기	0.3	56.7	20.3	11.7	7.3	2.3	1.3	100
옷 수선	3.3	75.3	1.0	1.0	10.3	6.3	2.7	100
세탁소에 가기	7.7	37.3	35.3	4.0	8.0	5.7	2.0	100
집안용구 수리	15.3	1.7	70.7	1.0	5.3	4.3	1.7	100

<표 2> 육아의 가족내 분담 (N=300) %

	가족 내에서 행하지 않음	조사 대상자	남편	부부간 균등분담	부모	기타	무응답	계
아이 밥먹이기	0.3	79.7	4.0	6.7	5.3	2.7	1.3	100
아이랑 놀아주고 산보시키기	0.7	46.0	29.0	11.7	7.0	4.7	1.0	100
아이 옷 입히고 목욕시키기	0.3	83.7	5.3	6.3	3.0	1.3	0	100
아이 유아원에 데리고 다니기	13.7	42.7	23.0	8.3	3.7	4.7	4.0	100

위의 표를 토대로 '남편의 가사육아참여도'라는 새 변수를 만들어⁶⁾, 이것이 앞에서 살펴 본 연령, 소득, 학력, 자녀수, 가족형태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 및 t-검증을 행하였다. 그 결과 남편의 연령 만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p < .05$). 즉 남편의 나이가 젊은 경우 가사육아 참여도가 높아지는 점으로 보아, 젊은 부부의 경우 전통적 남녀관계에서 평등적 관계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3. 가사육아 분담에 대한 기대의 부부간 차이와 결혼생활 만족도

우선, 부부간 가사 및 육아 분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대와 이들이 보는 남편의 기대를 도표화 하면,

6) 남편의 가사육아 참여도는 위의 <표 1>과 <표 2>에서 남편이 주로 수행한다고 기입한 항목 및 부부간 균등분담한다고 기입한 항목의 갯수의 합으로 점수를 산출하되,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설것이, 요리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다.

<표 3>과 같다.

<표 3> 부부간 가사 육아 분담에 대한 기대 (N=300) %

	가 사		육 아	
	조사대상자의 기대	남편의 기대	조사 대상자의 기대	남편의 기대
남편과 아내의 균등분담	38.0	30.3	41.7	30.0
아내가 하되 남편 도움	48.0	46.3	51.3	50.7
오직 아내 혼자서	1.3	17.0	2.0	14.0
기타 및 무응답	12.7	6.4	5.0	5.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자와 남편(아내가 추정하는) 공히, 가사와 육아의 부부간 균등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대하는 수보다는 아내를 가사 육아 수행의 주요 책임자로 인식하는 수가 더 많은 것을 볼 때, 러시아의 경우에도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부간 균등분담이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에게도 아직 규범으로서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기대(아내가 추정하는)와 아내의 기대를 비교해 볼 때, 남편보다는 아내가 약간 더 역할 균등분담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결혼 생활 만족도를 이루는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표 4>과 같이 결혼생활 만족도를 이루는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네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 1은 남편의 지원, 요인 2는 부모들의 지원, 요인 3은 가정생활 조건, 요인4는 부부관계로 명명할 수 있다. 각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⁷⁾

7)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이면 1점, 부분적으로 만족이면 2점, 완전히 만족이면 3점을 부여하여서 3점에 가까울수록 더 만족스러운 것을 의미한다. 이 문항들의 전체 평균값은 2.097이며, 이와는 별도로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만족도를 단일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평균 2.368의 값을 보이고 있다.

<표 4> 결혼생활 만족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요인분석결과:적교회전후 요인행렬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공통성
가사에의 남편도움	.84234	.09168	.01109	.02037	.71849
육아에의 남편도움	.83740	.00926	-.00677	.09005	.70949
남편과의 상호이해	.60913	.07739	.24708	.43650	.62860
가사육아에의 부모도움	-.02743	.87452	.08016	.01694	.77226
가사육아에의 남편부모도움	.14446	.83862	.08747	.07915	.73806
물질적 안정	-.08842	.00909	.79854	.20454	.68741
여가시간 소요방법	.28417	.12628	.72293	-.25376	.68371
주거조건	.01639	.07141	.57033	.08121	.33723
성생활	.04223	-.04046	.02834	.88203	.78220
남편의 음주습관	.27083	.27709	.08326	.46853	.37658
고유값		2.62	1.48	1.25	1.09
설명분산(%)	26.2	14.8	12.5	10.9	64.3

<표 5> 결혼생활 만족도의 문항별 평균 점수 (N=300)

요인	문항	문항별 평균점수	표준편차
남편의 지원	가사에의 남편도움	2.073	.650
	육아에의 남편도움	2.128	.694
	남편과의 상호이해	2.348	.602
부모들의 지원	가사육아에의 부모도움	2.166	.571
	가사육아에의 남편부모도움	1.865	.543
가정생활 조건	물질적 안정	1.729	.610
	여가시간 소요방법	1.681	.650
	주거조건	1.883	.720
부부관계	성생활	2.564	.561
	남편의 음주습관	2.452	.681
문항의 평균		2.097	.315
전반적 결혼생활 만족도		2.368	.617

위의 네 요인들의 전반적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반적 결혼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위의 네 요인들의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투입방식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행하였다.8) 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이,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은 '남편의 지원', 그다음은 부부관계, 가정생활조건, 부모들의 도움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전반적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전반적 결혼생활 만족도					
단계 독립변인	β	R-square	R-square change	F	p
남편의 지원	.5348	.2860	.2860	110.96**	.00
부부관계	.3234	.1046	.3906	88.46**	.00
가정생활조건	.1982	.0393	.4299	69.12**	.00
부모들의 지원	.1603	.0257	.4556	57.32**	.00

** p < 0.001

또한 부부간 기대의 차이를 '남편이 더 평등지향적', '부부간 일치', '아내가 더 평등지향적'인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남편의 가사육아참여도를 분산분석 및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한 결과, 아내가 더 평등지향적인 집단의 결혼만족도(p<.01) 및 남편의 가사육아참여도(p<.001)가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4. 직장생활 만족도와 취업동기

직장생활 만족도를 이루는 문항들을 주성분 분석방법 및 배리맥스 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두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 1은 개인의 직업적 성취에 관한 요인이고, 요인 2는 근무시간에 관한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각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 <표 8>과 같다.⁹⁾

8) 이 중다 회귀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우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0), 독립변인인 요인들은 네 개가 다 유의한 변인으로서 회귀식에 포함되었다 (Sig T < .000). 이들의 설명력 R-square는 최종단계에서 .4556로서, 종속변인의 분산의 45.56%를 설명하고 있다.

9) <표 5>의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이면 1점, 부분적으로 만족이면 2점, 완전히 만족이면 3점을 부여하여서 3점에 가까울수록 더 만족스러운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별도로 직장생활 전반에 걸친 만족도를 단일문항으로 질문한 결과는 <표 8>의 맨 아랫줄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직장생활 만족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요인분석 : 직교회전 후 요인 행렬

	요인 부하 계수		공통성
	요인 1	요인 2	
개인능력의 활용도	.88243	.07381	.78414
직장에서의 직위	.86289	.05423	.78414
급료	.51223	.26289	.33149
근무시간 규정	.16377	.75753	.60067
수행하는 업무량	.27731	.69643	.56192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	-.10159	.65345	.43732
근무시간의 활용도	.39864	.57628	.49101
고 유 치	2.7087	1.2453	
설명분산(%)	38.7	17.8	56.5

<표 8> 직장생활 만족도의 문항별 평균 점수 (N=300)

요인	문항	문항별 평균 점수	표준편차
요인 1	개인 능력의 활용도	1.908	.621
	직장에서의 직위	2.048	.687
	급료	1.534	.616
요인 2	근무시간규정	2.141	.673
	수행하는 업무량	2.167	.631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	2.089	.814
	근무시간의 활용도	2.071	.635
문항의 평균		1.991	.406
전반적 직장생활 만족도		2.024	.613

위의 두 요인들 중 어느 요인이 전반적 직장생활 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반적 직장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위의 두 요인들의 요인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별 투입방식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행하였다.¹⁰⁾ 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8>에 나타나 있다.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단계별로 살펴 보면, 우선 요인1(직업적 성취에 관한 요인)이 먼저 투입되었으며($\beta = .6487$), 요인 1만으로 전반적 직장생활 만족도를 42.1% 설명할 수 있고, 다음으로 요인 2가 투입되었다($\beta = .2357$). 이중 역할 상황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인은 근무시간에 관한 요인이지만, 그보다는 직업적 성취에 관한

10) 이 중다 회귀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우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0$), 독립변인인 요인 두 개가 다 유의한 변인으로서 회귀식에 포함되었다(Sig T < .000). 이들의 설명력 R-square는 최종단계에서 .4764로서 종속변인의 분산의 47.64%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이 더 전반적 직장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이 고학력이므로 직업적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표 9> 전반적 직장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종속 변인: 전반적 직장생활 만족도						
단계	독립변인	β	R-square change	R-square	F	p
	직업적 성취	.6487	.4209	.4209	199.84**	.00
	근무시간	.2357	.0555	.4764	124.66**	.00

** p < .001

한편, 이들의 취업동기를 살펴 보면 <표 10>과 같이, 단순히 경제적 필요성 때문만이 아닌 심리적 동기¹¹⁾가 오히려 더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0> 취업 동기 (N=300)

취업 동기	명	%
경제적 동기만으로 취업	72	24.0
심리적 동기만으로 취업	95	31.7
복합적 동기(심리적 동기 및 경제적 동기)로 취업	133	44.3
합 계	300	100.0

그렇다면 취업 동기에 따라 결혼만족도, 직장만족도, 이중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차이를 보일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 및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행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동기만으로 취업하는 집단은 여타 두 집단보다 결혼만족도(p<.05) 및 직장만족도(p<.001)가 유의미하게 높으며, 이중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음(p<.001)을 알 수 있다. 직장생활과 결혼생활이 취업여성의 생활의 양대 주요 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심리적 동기만으로 취업한 집단은 여타 집단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5. 러시아 도시 기혼취업여성의 이중역할 부담을 느끼는 정도

아래의 <표 11>과 같이 이중부담 정도는 전반적으로 상위에 속하며, 여가시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다.¹²⁾

11) '직장에서 흥미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 '직업은 삶에 의미를 주기 때문' 등의 이유를 심리적 동기로 분류하였음.

<표 10> 이중부담을 느끼는 정도 (N=300)

문항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여가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함	2.673	.524
신체적 피로감	2.289	.542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하는 것이 무척 어려움	2.271	.671
정신적 긴장	2.220	.569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음으로 인한 죄책감	2.195	.644
문항 전체 평균	2.322	.400

이처럼 조사대상자들이 이중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면, 이들은 어떤 방식의 삶을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을까? 이에 대하여는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69.7%)이 가정을 돌보면서 전일제 직업보다는 시간제 직업을 갖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전업주부로서 가정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전일제 직업에서 오는 이중부담의 어려움을 줄이기를 원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물론 시간제 취업이 여성의 이중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가져다 주겠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의 직업 지위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표 12> 원하는 삶의 방식 (N=300)

구분	빈도	%
시간제 직업을 갖고 가정을 돌보는 것	209	69.7
직업을 가지지 않고 가정주부로서 사는 것	50	16.7
전일제 직업을 갖고 가정을 돌보는 것	27	9.0
전일제 직업을 갖고 아예 가정을 갖지 않는 것	11	3.6
기타	3	1.0
합계	300	100.0

그렇다면 조사대상자들은 이중역할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개방식으로 복수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12) 위의 각 문항은 1점에서 3점까지 분포하며, 이러한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 1점, 가끔 느끼면 2점, 자주 느끼면 3점을 부여하여, 3점에 가까울수록 더 부담을 많이 느낌을 의미하며, 전체적으로 평균 2.322의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표 13> 이중부담의 경감책에 대한 제안 (N=169)

이중부담의 경감책에 대한 제안	명	%
근무시간 감소 (시간제 일 포함) ¹³⁾	90	53.2
경제적 상황 개선 ¹⁴⁾	88	52.1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기계화 ¹⁵⁾	66	39.2
사회 체제의 변화	18	10.6
심리기제의 변화	7	4.1
기타	13	7.7

이상에서 살펴 볼 때 시간제 취업에 대한 제안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가정과 시간제 취업을 병행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상황 개선 및 사회체제의 변화에 대한 제안은 옛 소련 사회의 누적된 문제들이 최근의 사회의 대변혁과 관련하여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이중부담의 해결책으로 제시 되는 가사 육아에 대한 공적 서비스 및 가부장적 의식의 변화를 통한 남성과의 가사 육아 균등분담에 대한 제안이 타 항목에 비하여 비중이 낮으며, 후자는 극히 경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본 조사의 시기가 경제적으로 대 위기상태라고 규정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경제상황의 개선에 보다 강조되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보다 나은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취업주부의 이중부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단순히 경제적 조건의 향상만으로는 이중역할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6. 연구질문들간의 관련성

우선 남편의 가사 육아 참여도, 조사대상자의 결혼생활만족도, 직장생활만족도, 이중부담을 느끼는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면 <표 14>와 같다. 먼저 남편의 가사육아참여도를 중심으로 살펴 볼 때, 남편이 가사육아에 많이 참여할수록 아내는 결혼생활에 더욱 만족하고($r = .2369, p < .001$), 이중부담을 덜 느끼므로($r = -.1637, p < .01$), 남편의 가사육아에의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중 부담을 중심으로 생각해볼 때 여성이 이중부담을 더욱 느낄수록 결혼생활에 덜 만족하며($r = -.2488, p < .001$), 직장 생활에도 덜 만족한다($r = -.2618, p < .001$). 이를 통하여 이중부담 정도가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와 직장 생활 만족도에 가지는 중요성이 확인된다. 또한 여성이 직장생활에 만족할수록 결혼생활에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r = .3228, p < .001$).

13) 자유로운 일과규정, 융통성있는 근무형태 등의 응답을 포함함.

14) 인상된 현재 물가수준으로 남편 및 자기의 소득의 현저한 인상, 아동수당의 인상, 상점에 식품 및 물건의 풍부한 공급, 주거조건의 향상 등의 대답을 포함함.

15) 가사에 대한 보다 질높은 공적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 반조리된 음식 종류 확대, 가사노동에 필요한 전기용품 구입, 의료서비스 향상, 아동유위험 시설교 육기관 확대 등의 응답을 포함한다.

<표 14> 남편의 가사 육아 참여도, 조사대상자의 결혼생활 만족도,¹⁶⁾ 직장생활 만족도,¹⁷⁾ 이중부담 정도¹⁸⁾ 간의 상관 관계

	남편의 가사육아참여도	결혼생활 만족도	직장생활 만족도	이중부담 정도
남편의 가사육아참여도	1.0000			
결혼생활 만족도	.2369**	1.0000		
직장생활 만족도	.0334	.3228**	1.0000	
이중부담 정도	-.1637*	-.2488**	-.2618**	1.0000

1-tailed Signif: * < .01 ** <.001

그렇다면 이중부담 정도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은 무엇이며, 그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이중부담 정도이며, 독립변인으로는 우선 앞에서 주요 변인으로 살펴 보았던 남편의 가사 육아 참여도, 조사대상자의 결혼생활 만족도, 직장생활 만족도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나이, 자녀 수, 응답자 소득, 남편 소득, 가족형태(가변수화)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렇게 하여 중다회귀분석¹⁹⁾ 을 행한 최종 결과는 <표 15>와 같다. 먼저 직장생활에 만족할수록 이중부담을 덜 느끼며 ($\beta = -.24251$), 자녀수가 많을수록 이중부담을 더욱 느낀다($\beta = .17485$). 또한 남편이 가사 육아에 많이 참여할수록 이중부담을 덜 느끼며($\beta = -.14829$), 조사 대상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이중부담을 더욱 느끼고($\beta = .14120$),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이중부담을 덜 느낀다($\beta = -.12844$). 그러므로 여성의 이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인들에 유의하여 경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외의 변인들, 즉 조사대상자의 소득, 남편의 소득, 가족형태는 이중부담의 정도를 유의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이중부담 정도를 설명하는 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반응 변인: 이중부담을 느끼는 정도							
독립변인	B	β	T	Sig T	R-square	F	p
직장생활 만족도	-.1769	-.2425	-3.799**	.0002			
자녀수	.6617	.1748	2.635*	.0090			
남편 가사육아참여	-.0247	-.1482	-2.161*	.0317	.1889	11.08**	.00
연령	.0553	.1412	2.066*	.0399			
결혼생활 만족도	-.0837	-.1284	-2.033*	.0432			
회귀상수	13.5562		21.343**	.0000			

* p< .05 ** p<.01

16) <표 5>의 결혼만족도를 이루는 10개 문항들의 점수의 합을 결혼생활만족도의 점수로 사용하였다.

17) <표 8>의 직장 만족도를 이루는 7개 문항들의 점수의 합을 직장생활 만족도의 점수로 사용하였다.

18) <표 11>의 이중부담을 느끼는 정도를 이루는 5개 문항들의 점수의 합을 이중부담정도의 점수로 사용하였다.

19) 이 중다 회귀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우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 11.08, p< .000). 이들의 최종설명력(최종 R-Square)은 .1889로서 이는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 (이중부담을 느끼는 정도)의 분산의 18.89%를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V. 결론 및 논의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하여 러시아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사회적 규범이 되지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가사와 육아가 사회 및 남성과 분담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여전히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간 분담에 대한 심리적 기대 역시 균등부담과는 거리가 있으며, 이중부담에 대한 해결책 제안에서도 심리적 기제에 대한 변화에 대한 관심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인간의 심리적 기제의 변화는 사회나 경제체제의 외적 변화보다 훨씬 느리고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지체현상이 여성의 이중부담의 주요원인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우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아무리 사회가 여성의 취업을 장려한다고 할지라도 여성의 가정역할의 경감 혹은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취업은 이중역할 부담을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하여 러시아 여성에 대한 본 연구가 우리 나라 여성에 대하여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논의와 연결시켜볼 때, 사유재산제도폐지 및 여성의 경제활동이 양성평등을 보장하리라고 주장하였던 마스주의 페미니즘은 러시아 여성의 이중부담의 현실을 통해 볼 때 지지되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간과하였던 가부장적 남녀관계 및 경직된 성역할 분담이 양성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실천적 측면에서 우리 나라의 현실과 결부시켜 생각해볼 때, 러시아 여성의 이중부담 문제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 일로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 여성의 이중부담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고 최소한 탁아시설이라는 공적서비스는 확립된 러시아에서도 여성의 이중부담이 여성에게 어려움을 줄진데, 하물며 러시아보다 가부장적 관념이 강하고 아동의 사회적 양육의 개념 및 실천이 정착되지 않은 우리 나라 여성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 및 사회단체에서 탁아시설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 여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탁아시설이 확립된다고 하더라도 남녀 성역할 분담의 정형이 변화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의 이중역할 문제는 많은 부분 사회의 여성에 대한 양면적 기대에 부응하는 바, 이는 근본적으로 가정영역과 여성을 동일시하는 뿌리 깊은 관념이 깨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부각되는 것은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여성 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가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식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아동기때부터 지속적으로 가족, 학교, 사회, 매스컴 등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사업 실천분야에서도 여성의 이중역할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서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부부상담 및 가족치료, 그리고 부모교육, 가족 생활 교육, 부부일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단체 단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 기혼 취업 여성의 이중역할에 관련되는 삶의 경험 위주로 설계 되었기 때문에 남성 집단은 배제하였다. 따라서 기혼취업여성 집단과 기혼취업 남성 집단과의 비교연구가 행해진다면, 기혼 취업여성이 겪는 이중 역할 부담의 정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진다. 또한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여성들의 이중부담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연구들을 북한사회에 적용하여 북한 여성의 이중역할에 대한 연구를 추후의 연구과제로 제안한다.